

#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거주권의 문제와 공간의 분리\*

—조세희·윤홍길 소설을 중심으로

박진영\*\* | 고려대

## <목 차>

1. 공간주권과 공간권력
2.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거주 의미
3. 구별짓기와 공간의 분리
4. 도시에 대한 권리

## 1. 공간주권과 공간권력

이 글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과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를 대상으로, 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주권과 공간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두 작품에 나타나 있는 거주 의미 및 공간 분할방식을 구별짓기와 거주권의 개념을 통해 밝힌 후, 70년대를 대표하는 이들 텍스트가 공공성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시론적으로 살필 것이다.

공간 자체는 새롭지 않은 테마다. 하지만 70년대 소설에서의 도시의 팽창 및 주변화에 따른 계층의 재편 문제, 지배와 저항의 서사 등을 고려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혹은 조세희·윤홍길이 당대 도시재개발에 따른 소외계층의 대두를 ‘난장이’와 ‘아홉 켄레의 구두’라는 고유한 상징을 통해 다룸으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448)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로써 70년대의 대표작가가 되었다 할 때, 공간은 매우 중요한 토opic에 속한다. 주지하듯 급속한 산업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70년대에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도시의 공간을 둘러싼 공간성의 새로운 구축·구획·분할이 그 핵심에 위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소설의 범주가 아니더라도 공간·장소·경계의 문제는 박태순, 박완서, 이문구, 최인호 등의 소설에 널리 편재하는 70년대적 작가의식의 근본상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공업·산업·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빈민 주거지가 생겨났”<sup>1)</sup>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공간의 분리가 갖는 사회사적 성격의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공간의 분리는 이미 하나의 담론에 속하며<sup>2)</sup>, 사회불평등 또한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조세희·윤홍길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급속한 산업도시화의 폐해와 부작용이라는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sup>3)</sup> 하지만 거칠게 말하자면, 도시소설의 범주 상의 특징을 적용하거나

- 1) 『광주대단지 사건—옛 성남출장소…정부수립 후 최초 도시빈민투쟁』, 『주간경향』 1130호, 2015.6.16.
- 2) 도시공간의 배타적 편성과 계층별 분리는 사실 전세계적 현상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도시 내 차별분리단 (...)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층 간 전쟁을 일컫는 이름이다.”(132쪽)라고 말한다.(마이크 데이비스, 김정아 옮김,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2008)
- 3)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세희·윤홍길 소설을 고찰한 기존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 연구』(영남대석사, 2002);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중앙대박사, 2005);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서울대박사, 2014); 유은정, 『도시소설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도시 권력』(『반교어문연구』 22집, 2007); 양한진, 『윤홍길 소설의 공간의식』(『한남어문학』 33집, 2009); 이평전,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집, 2013).
- 4) 오창은은 “근대 도시는 새로운 공간의 생성 및 공간의 자본화를 특징으로 한다.”(6쪽)는 전제 하에, 60~70년대 소설의 도시성 재현 양상을 거리문화, 아파트 공간, 도시적 일상, 하위계층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도시소설의 전반적 특징을 입론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조세희·윤홍길 소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선정의 자의성이 발견된다. 류희식은 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변두리성’ 내지 ‘주변성’의 의미를 천착한다. 주변성의 이중적 의미, 즉 도시의 “타자화된 개인들

리얼리즘의 전통에서 당위적 결론을 반복해온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일반론적 측면에서 노사 간 갈등 모티프에 내재하는 선악구도를 재확인하는 데 머물거나, 개발의 유토피아 대 상실의 디스토피아처럼 모더니티 담론이 귀착하기 쉬운 이분법에 환원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이 글은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권리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70년대적 공간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거주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사유함으로써 두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정치의 내용을 밝히고, 나아가 공공성을 화두로 70년대 소설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하고자 한다.<sup>5)</sup> 이는 앞서 말했듯 ‘공간’을 70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 핵심적으로 구조화되는 중핵에 전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어디에 거주하는가’는 ‘나는 누구인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며, 한 사회의 공간사용법은 시민적 공공성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공간에 기입된 권력의 작동방식으로서 지배/종속, 점유/배제 등은 특정 장소에 ‘거주(퇴거)’하는 주체의 ‘주권(비주권)’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혹은, 공간적 지표는 고유한 장소성의 형성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관계와 힘의 배치를 실재적으로 재현해준다. 1970년대에 이르러 특히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점차 중심과 주변이 명확히 구분되는 ‘도시적 징후’ 혹은 ‘문제적 현상’이 대두되었다<sup>6)</sup>고 할 때, 공간의 분리와 하위계층의 등장은 70년대 문학의 중요한 장면에 속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공간은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domain)으로 조직되고 규칙화되지만<sup>7)</sup> 조세희·윤홍길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의 분화는

---

이 모여 다양한 모순을 형성하고 있는 배제의 공간’이면서 “자본의 폭력적 억압과 제도적 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5-6쪽)이기도 한 점에 주목해, 주류질서에 대항하는 변두리성의 의미를 적극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대항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도시빈민의 정치적 역할을 전제하기엔 이상적 면모가 강하다 할 수 있다.

- 5) 60년대 소설에서 공간주권 내지 공간권력의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테마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도시에 편입·적응해 자기 존재의 기반을 다지려는 김승옥·이청준 소설의 주인공들에게도 도시 공간은 중요한 무대다. 하지만 보다 첨예하게 공간권력을 반영하고 보편인권으로서의 거주권 문제를 추동하는 것은 70년대 소설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 6) 김 원, 『황량한 ‘광주’에서 정치를 상상하다: 광주대단지 사건』,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2011, 299쪽.
- 7) 생산공간과 소비공간의 분화, 고소득 주거지와 저소득 주거지로의 분화, 중

이러한 현상의 단순한 기록, 고발에 머물지 않는다. 작품에 나타난 중간계급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 일종의 저항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공간독법은 산업도시화의 모순을 근대화의 일반적 병폐 내지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이 갖는 근본적 한계에 귀속시키는 대신, 작품에 투영된 공간의 토폴로지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sup>8)</sup>의 소설사적 의미를 새롭게 구현하고, 문학작품이 갖는 독자적 정치성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본다.

## 2.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거주의 의미

인간은 일종의 물질로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간다. 살아가는 동안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공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신체를 도구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그 자체를 살고 있다.”<sup>9)</sup>고 할 때, 혹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떤 장소(토포스) 속에 있고 어떤 장(코라)을 점하고 있어야만 한다.”<sup>10)</sup>고 할 때 이러한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 장소로서의 신체성 이외에도 공간은 주지하듯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기입되는 공적 활동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때 공간은 주어진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르페브르는 단적으로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sup>11)</sup>라고 말한다. 르페브르에 의

---

심지와 주변지의 분화, 분양주택 단지와 임대주택 단지의 부화, 고급문화지구와 대중문화지구의 분화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 혹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공간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자본의 힘은 거대한 자연의 공간(강, 산 등)까지 상품화해 자본의 논리가 흐르도록 만든다.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아카데미, 2013, 30-31쪽)

8) 이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아홉 켄레』로 약칭하고, 작품 인용 시 각각 문학과지성사 1992년, 2014년 판본에 의해 쪽수만 표기함.

9)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옮김, 『토포스—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87쪽.

10) 플라톤, 『티마이오스』(위의 책, 22쪽에서 재인용)

11)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르, 2014, 77쪽.

하면 공간은 사회적 힘의 산물 내지 권력배치의 결과물(생산물)일 뿐 아니라 생산작용 자체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비어 있는 것이라거나, 혹은 생산물로서 교환·소비되며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상호작용 또는 반작용에 의해 공간은 생산 자체에 개입한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예컨대 공간은 차이를 생산함으로써 경계를 구축한다.<sup>13)</sup> ‘구별짓기’를 공간에 적용한다면,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분할되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혼효된 채 자신의 고유한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근대의 최대문물인 도시공간은 계급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와 권력의 선점(배제)의 모순된 관계와 같이 권력행사의 파행성을 가시화하는 가장 문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난쏘공』의 ‘난장이’는 흔히 소외되고 억압받는 도시빈민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왔다.<sup>14)</sup> 윤홍길 소설의 ‘아홉 켄레의 구두’ 역시 마찬가지다. 가난 속에 이채롭게 빛나는 권씨의 구두는 도시빈민으로 몰락한 중간계급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상징이어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표상들, 혹은 변두리 삶의 재현이라는 사회적 반영에서, 현실에서의 역동적 힘의 배치나 그 상호작용은 간과되기 쉽다. 공간은 무엇보다도 계층, 젠더, 인종, 장애와 같은 다양한 권력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으로, 공간의 프레임을 통해 보면 권력관계의 분포와 배치가 세밀한 부분까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sup>15)</sup> 공간은 사회정의와 불평등, 인권의 문제 등을 가시화하는 하나의 통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 본래적 의미를 간단히 살핀 후, 두 작품에 나타난 거주, 거주권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같은 책, 27쪽.

13) 경계는 어떤 공간적 질서를 창조·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차이를 강조하고 어떤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그려진다고 할 수 있다.(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강지은 옮김, 『경계 긋기』,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2, 352-355쪽 참조)

14) 이때 빈번히 언급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신장은 백 십 칠 센티미터, 체중은 삼십 이 킬로그램이었다. (...)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 온 일은 다섯 가지이다.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이다.”(73쪽)

15) 강현수 외, SSK공간주권 연구팀 엮음,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3, 11-12쪽 참조.

거주란 ‘관계하다’, ‘같이 살다’, ‘거주하다’의 뜻을 품는 살아가기(habiting)에서 파생된 말로<sup>16)</sup> 본래 “만족한 상태, 평온해짐, 평온 속에 머무르기”<sup>17)</sup>를 뜻한다. 거주자 역시 일정한 땅에 살면서 특정 장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인간·땅·관계는 상호 결속되어 서로 분리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거주권(주거권)이란 무엇인가. 거주, 거주자의 연장선상에서 거주권은 공간을 소유물로(만) 바라보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즉, 사적 소유권 이전의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공간을 획득·양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경제적 소유물로만 보지 않는 관점을 의미한다.<sup>18)</sup>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교정해 거주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며, 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 이전의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재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난쏘공』과 『아홉 켄레』는 공통적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 줄 ‘거주권의 보장’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다룬다. 두 작품에서 ‘집’은 매우 중요한 서사적 구심점이 된다. 『난쏘공』에서 난장이 가족이 삶을 영위하던 공간이 “이십 이만 원”과 교환된다면, 『아홉 켄레』의 권씨는 “이십 만원”을 내고 어느 철거민의 권리를 사들인다. 『난쏘공』의 영희는 행복동 집을 지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하는 반면,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선거유세는 영희의 기억 속에 증오의 장면으로 남아 있다. 『아홉 켄레』의 권씨 역시 입주권을 ‘불법’으로 전매해 보름 안에 집을 짓지만, 공권력에 의한 줄속행정과 정치권력의 전횡은 이들의 거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난장이’에겐 특히 주거와 생활을 위한 삶터가 존재했었다. 철거계고장에 명시되듯 ‘난장이’네 주소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이

16) 배윤기, 『경계의 인문학: 공간·시간·로컬리티』, 『국제신문』, 2014. 4. 21.

17)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34쪽.

18) 이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주거권(the right to housing)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유엔권리위원회가 1991년 채택한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일반논평 4」에 따르면,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정의되는데, 특히 주거의 의미를 단순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나 상품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강현수 외, 위의 책, 60쪽)

다. ‘난장이’ 가족이 정착하게 된 낙원구 일대는 원래 경기도에 속한 채마밭이었다. 작가는 60년대에 채마밭 위에 포장도로를 깔고 무허가 집을 짓게 된 과정을 간략히 제시한다. 행복동 집은 ‘난장이’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지섭이 강조하듯이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이들의 보금자리다. 단편 『난쏘공』은 이들뿐 아니라 백여 세대 이상이 ‘낙원구 행복동’에 오래전부터 생활터전을 잡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비록 더러운 개천이 흐르는 방죽가에 위치하지만 이 곳은 누군가 마당가에 팬지꽃을 심어두기도 한 가꿈과 돌봄의 공간이며, 철거 이전 이들의 일상적 삶이 행복하게 영위되는 ‘낙원’이었음이 암시되어 있다.<sup>19)</sup>

하지만 제3의 시선에서 행복동은 일종의 슬럼가일 뿐이다. 지저분한 냄새가 나며, 무질서와 빈곤이 편재한다. ‘난장이’ 집에 가려면 술에 취한 주정뱅이들을 지나쳐야만 한다. 개발·정화가 필요한 후진(後進)지역이자, 통제와 관리를 요구하는 잠재적 우범지대인 것이다. 이 곳이 “주택 개량 촉진”을 위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도시위생과 미화의 기준에서, 진보의 관점에서, 철거와 퇴거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특히 공간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에서 도시재개발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다.” (...중략...) / 영화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여길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난쏘공』, 65쪽)

인용문은 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지배와 거주권에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공간지배는 실제 지배력 행사의 특권화된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면, 부재하는 것은 “마당가 팬지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정의이다. 주택개량촉진을 위한 재개발의 명

19) ‘난장이’는 신에게 “여기서도 벽돌 공장의 굴뚝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번호를 크게 써 붙인 집들이 다지다지 붙어 있어요. 집앞엔 방죽이 있구요. 언제 한번 와 보세요. 동네는 지저분해도 재미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발육이 나빠 유난히 작아 보이지만 귀엽습니다.”(41쪽)라고 말한다.

목 하에 이들의 거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난장이’네 삶의 터전은 “쇠망치를 든 사람들”에 의해 간단히 파괴되고, 행복동 일대는 이후 아파트 건축현장이 된다. 이는 주거단지의 재정비를 통한 도시정화 및 미화의 근대화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간을 통한 이윤창출과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의 꿈은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공간을 규칙화함으로써 균질화를 낳고, 다시 빈민가/아파트/고급주택가와 같은 계층적 위계를 통해 구별짓기를 수행한다.

난장이네는 철거의 보상으로 입주권을 얻는다. 하지만 명희네나 이들은 아파트로 가기 어렵다. “분양 아파트는 오십 팔만 원”, “임대 아파트는 삼십만 원”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만 오천 원씩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70년대에 집은 이처럼 단순한 거주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것이며, 신분계층의 상징이 되었다.<sup>20)</sup> 근대적 거주공간으로서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은 일정한 자산을 축적한 경제력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다.

‘난장이’네가 무허가건물에 사는 ‘불법’ 주민이었다면, 『아홉 켄레』에서 정부가 새롭게 조성한 광주대단지의 공간은 ‘합법적’ 매매의 대상이 된다.<sup>21)</sup>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이 본래 ‘땅’과 ‘인간’, 그리고 거기에 깃든 ‘관계’를 상호 결박해 주었다면, 돈으로 환산되는 집은 이제 투자 및 투기의 대상으로 강등된다. 70년대는 실제 곳곳의 개발붐을 타고 부동산으로서의 집의 의미가 본격화된 시기다. 『난쏘공』에서 “세단차 사나이”는 재개발지구의 표를 거의 몰아 사들여 입주권을 거의 두 배의 가격차로 팔아넘긴다. 뿐만 아니라 ‘은아주택’, ‘은아부동산’을 운영하며 “신천호대교, 잠실지구, 강남 1로에 붙은 급속도 발전 지역”과 같은 광고를 낸다. 광주대단지사건(1971)을 배경으로 한 『아홉 켄레』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1971년 총선 즈

20) “중산층만이 아니라 (...) ‘집’은 ‘집장만’에 따르는 고통과 불안, 경쟁심 등을 보상할 사회적 시선과 그것을 선망하게 만드는 통치성의 장치들의 총합이다.”(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박사논문, 2014, 146쪽)

21) 당시 광주대단지에 거주했던 주민은 원주민, 철거민, 전매 입주자, 세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김 원, 위의 글, 305쪽), 권씨는 이 중 전매 입주자에 속한다.

음 대단지의 투기·건설 붐은 절정이었다.<sup>22)</sup> 공간에 투영된 상품논리의 전면적 지배와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인해, 공간은 자본과 권력의 관계를 재현하는 일종의 대체물이 된다.<sup>23)</sup>

도시미화의 관점에서 판자촌의 철거는 ‘이질적’ 이웃에 대한 공포감을 불식할지 모른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될 도시하층민의 거주지 역시 지배담론의 통제가 완벽하게 관철될 수 없는 이질성의 장소이기에<sup>24)</sup> 이들의 공간적 결집에 대한 공포를 떨치기는 어렵다. ‘난장이’, 꼬추, 앓은뱅이는 실제 살인을 저지르거나 스스로 죽음을 맞는다. 철거유민들의 삶이 흔히 고독사, 쪽방촌으로의 이동 등으로 이어진다면<sup>25)</sup> 삼남매와 ‘난장이’ 부인이 은강으로 이주 후 겪게 되는 일련의 변화나(『난쏘공』), 권기용의 삶의 궤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아홉 켄레』). 생활공간이 파괴된 주민은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주민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실직자, 범법자가 되는 것은 이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아홉 켄레』에서의, 전과자 권씨를 세입자로 맞게 된 오선생 부인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질적이며 공포스러운 대상이다.

『난쏘공』과 『아홉 켄레』는 모두 법이 개발권을 인정하자 거주민은 범법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영수는 범법자가 되어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최고형벌로서의 사형집행을 당한다. 선량한 시민이었던 권씨 역시 전과자가 되어 경찰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된다. 『아홉 켄레』는 오선생에게 권씨를 감시할 것을 종용하는 이순경의 방문으로 시작된다. 기존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공권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아홉 켄레』에서 권씨의 “모기 앞정강이 하나 어찌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뚝뚝 부러뜨린

22) 같은 글, 311쪽.

23) 오정진은 한국사회의 공간구성 및 운영원리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사유화’, ‘위계적’, ‘토건개발 중심’, ‘비민주성’, ‘공/사 영역의 착종’을 든다.(강현수 외, 위의 책, 12-18쪽 참조)

24) 김 원, 위의 글, 304쪽.

25) 『철거에 쫓겨 옆동네 쪽방으로…10년 만에 35%가 숨졌다』, 『한겨레』, 2015. 6. 4.

그 불가사의”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두 차례 배부된 통지서(즉 보름 안에 전매 소유한 땅에 집을 지으라는 것과 역시 보름 안에 지대를 납부하라는 것) 또한 권위정치의 위협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주거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강제퇴거이다. 강제퇴거는 주거권뿐 아니라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다.<sup>26)</sup> 집과 마을의 파괴는 물리적 거처의 파괴뿐 아니라 일자리의 파괴, 사회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공간은 곧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에게 농토가 단순한 재산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듯, 집 역시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다른 측면을 지닌다.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물들의 특수한 의미가 그것이다. 짐멜은 근대세계에서 돈이 교환의 부동 축으로 등장하게 되자 대상들이 지니는 질적인 측면, 심리학적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27)</sup> 『난쏘공』과 『아홉 켄레』는 공권력에 의한 공간의 독점과 경제논리의 전면화로 인해 70년대적 현실에서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구축·구획되는가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 3. 구별짓기와 공간의 분리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도시공간은 자본의 이동과 집중에 의해 끊임없이 ‘계계’를 생산해낸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한 계급이나 계급분파는 직업이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지표들 통해 인지될 수 있는 생산관계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성비나 지리적 공간(이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의 배분에 의해서도 정의”<sup>28)</sup>된다. 『난쏘공』의 행복동이 개천을 중심으로

---

26) 강현수 외, 위의 책, 60쪽 참조.

27) “사람들은 경제적 교환의 객체가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 우리는 심지어 화폐가치에 경제적 교환 대상의 정확하고 예외 없는 등가물이 내포되어 있다고 아주 쉽게 믿어버린다.”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21쪽)

28)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177쪽.

무허가 빈민촌과 “밝고 깨끗한 주택가”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후 인물들의 거주지 이동은 공간을 통한 구별짓기를 보다 적절히 예시해준다.

『난쏘공』에서 행복동 집의 철거가 ‘난장이’의 죽음을 야기한다면, 은강으로의 이주는 영수의 죽음을 예비케 한다. 두 죽음은 이렇듯 거주지 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세 남매가 서울 근교의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자, 이들은 대규모공단의 산업노동자로 일하며 “빈민굴”에서 살게 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들은 쓰레기로 가득한 죽음의 도시 은강에서 행복동 시절보다 더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진다. 행복동에서 이들이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면, 은강에서의 삶은 죽음 자체에 근접해 있다.

우리는 참고 살았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찾아 은강에 온 것이 아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는 했다. (...중략...) 공장을 끼고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널 때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시커먼 폐수·폐유가 그냥 흘렀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164쪽)

‘은강 사람들’과 ‘은강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 행복동에서는 신애와 같은 중산층과 이웃으로서의 연대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sup>29)</sup> 지섭과 같은 지식인 청년과 ‘난장이’의 교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은강에서의 이웃은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과, 어머니와 같이 저목장에서 나무껍질을 벗기는 “애꾸눈 노인” 정도다. 행복동 시절에 비해 이는 완전한 사회적 격리를 의미한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촘촘히 위계화된 공간의 구획은 이들의 고립을 넘어 희망을 차단한다. 도시 본유의 한 장소상의 이질성의 밀집<sup>30)</sup>과 달리, 철저한 격리와 구역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인용문을 포함한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기계 도시」, 「클라인씨의 병」 등의 단편 전반에는 극심한 환경오염과 비인간화 현상이 공간적 양극화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공간의 분할과 구획은 물론 도시하층민에게만 적용되지

29) 신애는 행복동에 인접한 “큰길 건너 포도밭 아랫동네”(106쪽)에 사는데, 난장이가 신애네 고장난 펌프를 고치게 되는 일도 이들이 인근에 사는 이웃이라 가능했던 일이다.

30)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82쪽.

않는다. 행복동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자, 행복동의 깨끗한 주택가에 살았던 윤호네는 북악산 숲속 저택촌으로 이사를 간다. 아파트의 상징성이 갖는 균질화된 공간성은 또 다른 구역화, 상류층의 주거지를 만들어낸다.

윤호는 막 이사간 동네에서 이 책을 읽었다.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였다. 아버지가 행복동 삼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누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싫다고 했었다. 비서를 따라 갔다 와서는 반대로 이사갈 날만 기다렸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네였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차를 세워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았다. 걸어서 이 저택촌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케도 회전』, 123쪽)

도시공간의 재정비는 미시적 구획화를 통해 단절감을 극대화한다. 은강이 더러운 폐유와 오염물질로 가득한 기계도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이라면, 인용문의 저택촌은 “꽃과 풀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오는 도심 속 자연에 위치해 있다. 전자가 생산기능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윤호·경훈의 예에서처럼 성적 욕망과 쾌락의 놀이공간을 표방한다. 은강에서의 세남매의 삶이 빈곤 자체라면, 『기계 도시』의 윤호는 “빈곤을 뜻하는 poverty도 시사 용어로만 이해”한다. 인용문에서 더욱 문제적인 것은, 울타리를 세우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지가 된다는 점이다. 경비가 삼엄한 폐쇄형 주택가의 형성은 어느 도시에나 편재하는 현상이다.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사적 소유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 이면에 감추어진 이들의 또 다른 고립감과 불안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외부인 출입제한 주거지역)’에서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한층 심각하며 치명적이다. 실제 “세단차 사나이”가 소지하는 ‘총’은 쏘고와 앉은뱅이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며, 경훈의 숙부는 영수의 ‘칼’을 맞는다. 칼이 최소한의 사회정기도 실현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휘두르는 뿌리 뽑힌 자의 분노라면, 총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이들의 불안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경훈은 자신의 비정상성을 인지하고 “내일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보자고” 생각한다. 경비시설을 갖춘 요새화된 고급 주택단지는 공간 전유에 있어 일종의 강박증적 표현으로 읽

한다.<sup>31)</sup> 달리 말해 일종의 “경제발작 시대”에 성취한 경제성장은 이들에게 역시 그늘을 드리우고 증상을 불러온다. 폐쇄형 주택단지에서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립은 슬럼가 빈민층의 분노에 못지않은 증상들이라 할 수 있다.

부와 권력의 분배가 양극화된 결과는 이렇듯 도시의 공간 형태에 고스란히 아로새겨진다.<sup>32)</sup> 『난쏘공』에서 환경오염, 비인간화의 문제마저 공간적으로 ‘독점화’되는 것을 볼 때, 도시 재편과정은 전체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띤다 할 수 있다. 윤홍길의 『아홉 켄레』 역시 마찬가지다. 『아홉 켄레』의 권씨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주동자로 참여한 후 도시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 인물인데, 공간 지표는 계층 간 이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준다. 권씨는 위 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구두를 손질하거나 “이래봐도 나 안동 권씨요!”,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sup>33)</sup>를 강조한다. 하지만 당시 학력자본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에서<sup>34)</sup> 권씨의 자의식은 상징권력이 무용해진 시대의 현실논리를 방증할 뿐이다. 막노동 현장에서 “놀랍게도 완연한 사무원 복장”을 하고, “구두만은 여전해서 칠피 가죽에 공들여 올린 초콜릿빛 광택”이 나지만, “권씨의 가장 권씨다움”은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로 만들 뿐이다.

산업화의 속도만큼 자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70년대적 현실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주공간의 크기와 어디에 사느냐(장소)의 문제이다. 단대리 천변부락/시청 뒷산의 은행주택, “20평 부락”/“100평 부락”의 차이만이 중요하다. 권씨가 대단지가 아닌 서울에 생활근거를 둔, 오선생과 같은 중간계급이었다는 사실은 현재적 공간 지표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낼 뿐이다. 반면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 이사를 온 후 오선생의 아내에게는 현주소를 강조하는 버릇이 생겼다. 주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31) 마이크 데이비스, 위의 책, 154쪽 참조.

32)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45쪽.

33) 이는 두 차례 강조된다. “오선생, 이래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189쪽),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195쪽)

34) 유은정, 『도시소설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도시 권력』, 『반교어문연구』 22집, 2007, 277쪽.

시청 뒤로 이사한 그 이후부터 아내에겐 누구하고 현주소에 관한 얘길 나누는 기회마다 언필칭 우리가 은행주택에 살고 있음을 힘주어 말하는 버릇이 생겼다.(『아홉 켈레』, 161쪽)

오선생 부인의 사회적 지위는 “숨통을 죄듯이 다닥다닥 엉겨붙은 20평 균일의 천변부락”의 세입자 시절과, “성남에서는 기증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시청 뒷산 은행주택을 산 다음 자그마치 100평 대지 위에 세운 슬라브 집의 안주인”이 된 지금, 전혀 다르다. 그러나 단대리에 살 때도 이들은 ‘별종’ 취급을 받았다. 천변부락의 정주민이 될 수 없음을 그의 이웃들이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한편 오선생네가 단대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 또한 이웃들 때문이다. 오선생은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과자를 땅에 던진 후 먹게 하는, 아들 동준의 악의에 찬 장난을 목격한다. 아내는 상시적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불안을 호소한다. “어쩐지 이 바닥 사람들이 무서워요.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눈빛들예요.” 특히 “천막 반 흙벽돌 반의 오두막에 사는 고물장수 마누라”는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된다.

거주 공간의 지표는 이때 자본의 논리에 의한 분할을 넘어 일종의 인격화를 수행한다. 공간에 인격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난장이’가 그러하듯, 『아홉 켈레』의 고물장수 부인 역시 단순한 빈민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시 외곽 지역, 빈민가, 계도 주민들의 상징적 강등과 낙인, 즉 ‘계도-효과’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몰락하거나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뜻한다.<sup>35)</sup>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 방문 주간이 이틀째로 접어드는 날이었다. 학생 하나를 향도로 세워 ‘별나라’ 부락에 거주하는 학부형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는 중이었다.(『아홉 켈레』, 170쪽)

②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난쏘공』, 75쪽)

35) 반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엄격하게 경비되는 고급 주택지의 호화공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클럽처럼 운용된다는 점에서 ‘클럽 효과’라 부른다.(마르쿠스 슈뢰르, 위의 책, 111-112쪽)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거주 지역, “부락”과 “구역”이 분절화되는 방식이다. ②의 “보호”가 이들 거주민의 완벽한 격리와 배제를 뜻한다면, ①은 “별나라”의 빈곤이 타파와 극복의 대상임을 암시한다. 『난쏘공』과 『아홉 켄레』는 이들 도시빈민들에게 ‘무질서’, ‘반사회성’, 나아가 ‘잠재적 범죄인’의 레페르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하급계층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 특징이 “다른 사회 계급들과 고립된 공간에서의 거주”<sup>36)</sup>라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고립·격리·배제는 공간을 통해 의미화되는 비주권의 방식인 동시에 공간에 새겨지는 정치성의 작동 예가 된다.

#### 4.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는 온갖 유형, 온갖 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면서도 하나로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며 공유재를 생산하는 장이다.<sup>37)</sup> 하지만 자본주의의 속성상 도시공간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재편되는데, 이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한 공유재를 생산하는 장으로서의 본연의 도시성과 충돌을 낳는다. 공적 공간이 점차 사유화되고, 공동의 이익이 개별화된 사적 소유권 탓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sup>38)</sup>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는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sup>39)</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르페브르의 주장에서 비롯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sup>40)</sup>이다. 이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모아진 총체적 권리로,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

36) 스코트 래쉬·존어리, 박형준·권기돈 옮김,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술사, 1998, 219쪽.

37) 데이비드 하비, 위의 책, 127쪽.

38) 같은 책, 140쪽.

39) 같은 책, 121쪽.

40) 이 단락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대해서는 강현수 외, 위의 책, 65-70쪽 참조.

는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 등을 뜻한다. 이 중 르페브르가 강조한 것은 특히 도시공간에 대한 전유의 권리이다. 이는 도시를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집합 공간으로 보고, 도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도시공간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특히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도시공간의 평등한 이용권과 사용권을 중시하고 도시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참여권을 강조함으로써, 주거권보다 더욱 급진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난쏘공』과 『아홉 켄레』는 재개발정책이 공간을 어떻게 전유하고 거주민들을 통제하는가를 통해 공간의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을 묘화할 뿐 아니라, 공간 분할에 의한 공간에 대한 권리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도시재개발이라는 공간의 근대적 사용과 거주권의 대립,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창출을 다룬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히 70년대적 현실에서 체득한 작가적 태도로서의 정직한 양심 내지 문학 고유의 저항성과 관련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간계급의 역할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 『난쏘공』과 『아홉 켄레』에서 중간계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정치적 통제를 위해 재편되는 공간의 생리를 간과 및 대응하는 주축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작품의 서사적 측면에서도 각각 ‘난장이’와 권씨의 중요한 이웃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난쏘공』에서 신애와 지섭은 먼저 ‘난장이’와 연대하고 주류질서에 저항하는 중간계급의 한 전형을 이룬다. 이들은 철저히 ‘난장이’ 편에 선다. ‘난장이’와 삼남매가 일방적 피해자, 사회불평등의 희생자라면, 신애와 지섭은 이들의 조력자로서 작가적 이념을 대변한다. 이들은 특히 『난쏘공』에서의 빈/부, 노/사의 선악구도에 있어 도덕적 선과 당위적 이상을 체현함으로써 전자의 우위성,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주의적 면모를 감지케 한다.

이에 비해 『아홉 켄레』의 오선생과 그 부인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오선생은 젊어서 출세한 동창들을 은연중 동경하고, 부인 역시 “에텔바이스 회원들”이 삼박자를 두루 갖춘 남편감을 껴차는 것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들의 속물적 욕망은 소시민성의 비판보다는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의 “네모”(중간계급)가 갖는 보편적 생리와 감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류층의 부와 행운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자신의 속물성을 반성하기도 하는 이들의 이중적 태도는 『난쏘공』과 또 다른 의미에서 중간계급의 한 전형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아홉 켄레』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선생이 이순경에게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는 것은 감시·통제에의 협조가 아닌 염려와 “근린애(近隣愛)”의 표현이다.

요컨대 당위적 이상의 요청이든 평균 감각의 반영이든, 『난쏘공』과 『아홉 켄레』의 중간계급은 공통적으로 번두리 소외계층에 대한 연대를 실천한다. 신애는 난장이를 응원·지지하고, 오선생은 처음부터 권씨에 대한 호의를 지니며 오선생 부인은 권씨에 차츰 동화된다. 조세희와 윤홍길은 앞서 말했듯 이들을 통해 작가적 이념을 대변하는데 중간계급의 역할은 도시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자각·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급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의 문제가 그 실상에 있어 계급투쟁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70년대 소설연구에서 이들 중간계급의 정치성은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92.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2014.

### 단행본 및 논문

- 강현수 외, SSK공간주권 연구팀 엮음,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3.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김 원, 『황량한 ‘광주’에서 정치를 상상하다: 광주대단지 사건』,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2011.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옮김, 『토포스—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 연구』, 영남대석사, 2002.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마이크 데이비스, 김정아 옮김,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2008.  
발레리 즐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배윤기, 『경계의 인문학: 공간·시간·로컬리티』, 『국제신문』, 2014. 4. 21.  
스cott 래쉬·존어리, 박형준·권기돈 옮김,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술사, 1998.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4.  
유은정, 『도시소설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도시 권력』, 『반교어문연구』 22집, 2007.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중앙대박사, 2005.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박사, 2014.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아카데미,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조은평·강지은 옮김, 『경계 긋기』,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2.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Abstract*

## The right to housing and segregation of residential space in novels of the 1970s

— in Cho Se-Hee, Yoon Heung-Gil's novel

Park, Jin-young(Korea Univ.)

This paper studies on the meaning of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means of segregation of residential space, and through which probes into a awareness of publicity of the writer of 70's, in novels of *The dwarf has shoots small balls* and *Another guy and remains nine pairs of shoes*. In particular, by rethinking space, characterized as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right to the city', it can be presumed to get over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of 'urban literature' existing.

Space is not already given, or not something that is neutral, by Lefebvre. Urban Space is sharply demonstrable operation method of capitalism, and it is a kind of composition to produce boundary.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70's bring about regularization of space into the realm of being affected by capital, and then

carry out space distinction of slums/apartments/expensive houses by hierarchical rank. It is made a diagnosis of the division of space pointedly by monopoly of public power and economic logic in *The dwarf has shoots small balls* and *Another guy and remains nine pairs of shoes*.

■ 주제어: 구별짓기, 공간의 분리, 거주권, 도시빈민, 중간계급, 공공성

■ Key word : distinction, separation of space, the right to housing, the urban poor, the middle class, publicness

접수일자: 2016. 3. 27 심사일자: 2016. 4. 21 게재결정: 2016. 4. 28